

##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

조 성 환\*\*

원광대학교

---

### 【요 약】

---

종래의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사상적 측면은 주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과의 관련 속에서 평가되어 온 감이 있다. 그러나 삼일운동에 천도교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삼일독립선언서」에도 천도교적 사상이 들어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천도교의 사상적 연원인 동학, 그리고 참동학을 자칭한 증산교,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원불교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삼일독립선언서」를 독해하였다. 그 결과 개벽종교의 핵심사상인 ‘개척정신·전환의식·도덕주의’가 「삼일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삼일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 자체를 개화가 아닌 개벽의 시각에서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삼일독립선언서」, 개벽사상, 개척정신, 문명전환, 도덕평화주의, 한국적 근대

---

### I. 들어가며 - 잃어버린 ‘근대’를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에 유학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통과 현대』라는 계간지를 창간한 적이 있었다. 책의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통의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53)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hansowon70@nate.com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야심찬 기획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8년에 24호를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유학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sup>1)</sup>

그렇다면 왜 이런 선구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 지속되지 못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 ‘근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개념적으로 보면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시기인데, 그 중간 고리가 없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근대가 빠졌을까?”라는 물음으로 돌아온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근대는 항상 ‘서구적 근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전통(유학)을 재해석하는 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근대로서의 유학’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sup>2)</sup>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매개 작업을 담당한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등장한 ‘개벽학’이다. 여기에서 ‘개벽학’이란, 강성원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새로운 세상을 연다(開闢)”는 의미의 개벽(開闢)을 주창한 한국의 자생종교의 학문을 말한다.<sup>3)</sup> 이들 자생종교는 동학·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으로, 하나같이 ‘개벽’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벽종교’라고 하기도 하고<sup>4)</sup> ‘개벽파’라고 부르기도 한다.<sup>5)</sup> 이 개벽학의 창시자나 이론가들은 예외 없이 유학에 정통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서세동점의 도전에 대응해서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면 유학을 ‘개벽했다’<sup>6)</sup>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다. 즉 전통(유학)과 현대(서학)를 잇는 가교로서의 개벽학(동학)을 ‘작(作)’한 것이다.<sup>7)</sup> 그런 점에서 개벽학은 전통을 현대화했다

1) 이와 비슷한 취지의 책으로는 김태길의 『유교적 전통과 현대 한국』(철학과 현실사, 2010)이나 김원열의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한국학술정보, 2007)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전통’은 ‘유교’의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다.

2) ‘근대로서의 유학’의 일종으로 설정된 개념이 1930년대에 제시된 ‘실학’이었는데, 이 역시 최근에는 논의가 시들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 이유는, 1990년에 김용옥이 『독기학설』에서 지적했듯이, ‘실학’을 ‘서구적 근대’라는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3) 조성한, 〈청년과 개벽〉, 《개벽신문》 80호, 2018년 12월. 강성원에 의하면 개벽학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세계주의의 입장에서 남녀·인종·국가·종교·문화 등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는 지구공동체를 지향하는 학문”으로, 그 특징은 서구의 과학문명과 동양의 도덕문명의 병행 내지는 융합을 추구했다는 데에 있다.

4)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모시는사람들, 2018.

5) ‘개벽파’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이병환의 〈동학은 ‘농민 전쟁’ 아닌 ‘유학 혁명’이다!〉, 《프레시안》(2014년 1월 20일)이다.

6) 천도교와 원불교에서는 “개벽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손병희, 『무체법경』 16. 「인어물 개벽설」, 원불교 개교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7) 동학에 이어서 나온 증산교와 원불교는 모두 동학을 자처하거나 동학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강증산은 자신의 학문이야말로 ‘참동학’이라고 했고(『도전』3:184:8-12),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도 자신을 최제우의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대중경』「변의품」31-32장 등등).

고도 할 수 있고 현대를 전통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가령 동학은 한국의 토착적인 ‘하늘’ 관념을 근대적인 평등사상의 토대로 재해석하였고, 동학을 개칭한 천도교는 이렇게 재해석된 토착관념을 바탕으로 서양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벽은 한국적 근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근대’라는 말은 ‘새롭다’는 의미의 ‘modern’의 번역어인데, 서양의 근대가 중세와는 다른 새로움이 출현한 시기를 가리킨다고 하면, 한국의 근대는 조선과는 다른 새로움이 출현한 시기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래서 개벽은 ‘번역어로서의 근대’가 아닌 ‘토착어로서의 근대’를 지칭하는 개념에 해당한다.<sup>9)</sup> 그리고 서구적 근대를 상징하는 개화가 외부로부터 새로움을 들여온 것이라고 한다면, 자생적 근대를 지칭하는 개벽은 안으로부터 새로움을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 개벽이라는 근대를 넣어서, “전통(유학) - 근대(개벽) - 현대(서학)”라는 대략적인 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잊혀진 근대로서의 개벽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근대사를 다시 읽으면 그동안 놓쳤던 점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일독립선언서」이다(이하, 「독립선언서」로 약칭). 「독립선언서」는 개벽학의 사상적 입장을 대표하는 문헌으로, 거기에는 “시대적 전환의식 · 사상적 개척정신 · 도덕적 평화주의” 등이 짙게 깔려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먼저 개벽학의 사상적 특징을 「독립선언서」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개벽사상의 특징 - 전환 · 개척 · 도덕

개벽학의 선구인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용담유사』에서 ‘다시 개벽’을 말하였는데<sup>10)</sup>, 여기에서 ‘다시 개벽’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른 사상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말이다. 동학이 창시된 1860년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여 북경이 함락된 해로, 이 사건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오래된 중심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민중들로서는 개화파들처럼 서양을 새로운 중심으로 설정

8)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모시는사람들, 2018.

9) 물론 ‘개벽’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중국에 있었지만, 일찍이 류병덕이 지적하였듯이,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의 사상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에서부터이다.

10) 『용담유사』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

할 수도 없었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침략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학’이다. 개벽학의 탄생은 조선 문명의 대전환을 의미하였다. 종래에 외국에서 사상을 수입해 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사상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처음으로 문제의 ‘해답’을 바깥에서 빌려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개벽학은 기본적으로 ‘개척정신’에서 출발한다.<sup>11)</sup> 그리고 시간 인식도, ‘개벽’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과거회귀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즉 상고주의가 아니라 미래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은 최제우를 이어 동학을 이끈 최시형의 “우리 도는 5만년의 미래를 표준한다”(『해월신사법설』「용시용활」)는 말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sup>12)</sup> 즉 동학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사상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동학이 생각하는 문명전환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도덕은 기존의 도덕을 탈구축한 새로운 도덕을 말한다. 가령 최제우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은 것은 신분질서에 의해 지탱되어온 차등적 도덕의 폭력성을 해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시형이 사물까지도 공경하는 경물(敬物)을 도덕의 극치라고 한 것도(『해월신사법설』「삼경」), 기존의 인간중심적 도덕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동학의 도덕은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즉 도덕에 의한 평화세계의 구축이야말로 동학을 비롯한 개벽학의 공통적인 목표였다. 이것을 최시형은 “활인도덕”, 즉 “사람을 살리는 도덕”이라고 하였고,<sup>13)</sup> 동학농민혁명에서는 “제폭구민”, 즉 “폭력을 제거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는 슬로건으로 나타냈으며, 강증산은 “해월상생”으로,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은 “강자와 약자의 병진(並進)”으로 각각 표현하였다.

바로 이 점이 개벽론이 혁명론과 갈라지는 점이다. 개벽사상은 사회변혁의 방법을 무력에 의한 국가전복이나 왕조교체와 같은 외부적 변화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 변화, 즉 ‘도덕’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혁명과는 다르다. 그래서 개벽은 일종의 영성수련에 의한 비폭력적 혁명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천도교를 창

11) 개벽학 중에서 ‘개척’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원불교이다. 원불교경전에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다”(『정전』「제3 수행편」 제8장 참회문)나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니”(『대중경』「제4 인도품(人道品)」38)과 같이 ‘개척’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고 있다.

12) 동학의 ‘개벽’ 관념에 나타난 미래지향성에 대해서는 류성민, 「종교의 공공성과 시대정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콜로키움 발표문, 2017년 9월 28일 참조.

13) “西洋之武器世人無比對敵者. 武器謂之殺人器, 道德謂之活人機.”(『해월신사법설』「오도지운(吾道之運)」)

시한 손병희는 ‘도전(道戰)’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삼전론(三戰論)』, 1903년), 여기서 ‘도전’이란 ‘무력의 싸움’이 아닌 ‘도덕의 싸움’이라는 뜻으로,<sup>14)</sup> 하늘을 모시고 생명을 섬기는 천도(天道)와 천덕(天德)을 통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오구라 기조가 현대 한국사회를 “도덕쟁탈전”으로 표현한 것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다.<sup>15)</sup>

천도교의 이러한 ‘도덕평화사상’, 즉 “새로운 도덕으로 평화를 이룩한다는 생각”은 이후에 3·1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한살림운동을 전개한 무위당 장일순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3·1 만세에 민족의 자주와 거룩한 민족의 존재를 천명하는 속에서도 비협력과 비폭력이라고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이에요.”<sup>16)</sup>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고, 천도교는 동학을 서구 근대적인 종교교단의 형태로 발전시킨 조직이다. 그런데 동학은 일반적으로 일제에 저항한 ‘동학농민전쟁’으로만 알려져 있지, 장일순처럼 그 운동의 바탕에 비폭력정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근대사를 저항과 투쟁 중심으로만 이해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사상이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질서,’ 즉 한국적 근대를 창출하고자 한 창조적인 사상운동이었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바로 이점이 동학과 삼일운동이 같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학운동=전쟁, 삼일운동=평화”라는 상반된 인식을 낳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벽학에 보이는 사상적 요소, 가령 개척정신·전환의식·도덕주의 등이 「독립선언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4)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도전이요, 둘째 재전이요, 셋째 언전이라. 이 세 가지를 능히 안 뒤에라야 가히 문명에 나아가 보국안민과 평천하의 계책을 가히 얻어 이루리라.”(畏尤甚於兵戰者，有三焉：一曰道戰，二曰財戰，三曰言戰。此三者能知然後，可進於文明之步，而保國安民平天下之策，可得而致矣。『무체법경』 10, 「삼전론」 ‘서론’)

“정벌이 이르는 곳에는 아무리 억만 명의 대중이 있다고 할지라도 억만 가지 마음이 제각각이지만, 도덕이 미치는 곳에는 비록 열 가구의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하고 덕을 함께 하니, 나라를 보호하는 계책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그래서 나는 반드시 말하노라, 싸워야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征伐所到，雖有億萬之衆，各有億萬心，道德所及，雖有十室之忠，同心同德，保國之策，有何難矣哉!…所以吾必曰，可戰者 道戰也。『무체법경』 10, 「삼전론」 ‘도전’)

15) 오구라 기조 지음, 조성환 옮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모시는사람들, 2018. 다만 오구라 기조의 경우에는 개벽학의 도덕 개념이 아닌 주자학적인 도덕 개념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장일순, 「상대를 변화시키며 함께», 김익록 엮음,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2012, 113쪽.

### Ⅲ.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sup>17)</sup>

흔히 「독립선언서」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족자결주의가 나왔다고 해서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던 모든 나라가 삼일운동과 같은 운동을 전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민족자결주의는 어디까지나 외적인 상황변화에 불과하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줄타동기하는) 내적인 동력이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적인’ 삼일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상의 차원에서 보면 ‘개벽사상’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독립선언서」에는 자신의 미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다’고 하는 자주와 자립정신이 기저에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개벽사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이라고만 해석해 왔는데, 제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사상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추동시킬 내적인 동력이나 토양이 없으면 그 사상이 현실화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 이미 개벽학이라는 자생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독립선언서」에 개벽사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을까?

#### Ⅱ-1. 개척정신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有)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재(在)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구원(舊怨)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他)를 질척배척(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화소복(遠禍召福)하는 첩경임을 명지할 것이 아닌가!”(강조는 인용자의 것. 이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자기의 건설”이나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한다는 정신이야말로 외부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민중들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新] 세상을 열고자 했던 개척정신에

17) 이 장은 2018년 11월 23일에 서강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종교교육학회&서강대생명문화연구소 추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평화와 종교 - 3·1독립운동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으로, 이후에 약간 수정되어 〈개벽사상으로 다시 읽는 독립선언서〉라는 제목으로 《개벽신문》 79호(2018년 11월)에도 수록된 적이 있다.

다름 아니다. 류병덕이 간척사업으로 시작한 원불교의 개벽운동을 ‘개척정신’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18)</sup> 그런 점에서 개벽파는 전통을 고수했던 척사파나 사상을 빌려왔던 개화파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데, 「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는 이런 개척적인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양심의 명령”이나 “구원(舊怨)과 감정(의 배제)”은 “신운명의 개척”과 “자기의 건설”을 민중들 자신의 수양에 의해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양은 동아시아 학문의 공통 요소이다. 수양 중심의 학문관에서는 학문의 목적이 자기의 완성에 있지 타자의 공격에 있지 않다. 즉 심신의 훈련에 의해 훌륭한 인격자(성인)가 되기 위한 것이지, 타인을 해치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벽학 역시 동아시아 학문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방법은 제국주의와 같이 정벌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없다. 최시형의 ‘활인도덕(活人道德)’, 즉 “도덕에 의한 살림”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강증산에 이르면 “원한을 풀어서 서로가 산다”는 ‘해월상생’으로 표현되는데, 해월상생은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구원과 감정을 배제”한다거나 “타의 파괴에 재(在)치 아니하도다”, 또는 “타를 질축배척함이 아니로다”나 “피차간 원화소복(遠禍召福)” 한다는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 II-2. 평화주의

개벽학이 개척하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미래는 도덕이라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폭력과 억압이 제거된 평화로운 세계를 말한다. 그들은 구질서[선천도덕<sup>19)</sup>]를 신분이나 성별에 의해 서열화 된 억압적인 사회로 규정하면서, 이 서열화가 차별을 낳고, 차별이 사회적 평화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였다. 가령 최시형은 “하늘만은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였고<sup>20)</sup>, 강증산은 선천(先天)의 묵은 세상(“묵은 하늘”)에서는 “싸워 이기기를 주장”하는 반면에, 후천(後天)의 새 세상(“앞 세상”)에서는 “화락하고” “귀천이 없는 대동 세계”가 된다고 하였다.<sup>21)</sup>

18) 조성환, 「한국학으로서의 원불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4집, 2018, 362쪽;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6.

19) ‘선천도덕’이라는 말은 최시형의 『해월신사법설』「기타」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물질의 발달이 극에 달한 지금은)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 여기에서 ‘선천도덕’은 종래의 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20) 『해월신사법설』「포덕」. 여기서 ‘하늘’은 강증산식으로 말하면 선천의 묵은 하늘이 아닌 후천의 새 하늘을 말한다.

이처럼 개벽학에서는 폭력적인 세계를 평화적인 수단[새로운 도덕]에 의해 평화로운 세계로 바꾸자는 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점이 「독립선언서」에 보이는 두 번째 개벽정신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作)하여 [중략] 구사상, 구세력에 기미(羈靡)된 일본위정가의功名적(功名的) 희생이 된 부자연, 우(又) 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개선 광정(匡正)하여, 자연 우(又) 합리한 정경대원(政經大原)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여기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와 “구사상 구세력”은 개벽사상적으로 말하면 억압과 차별을 옹호하는 선천의 옛[舊] 질서를 말한다. 즉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 옛 질서에 사로잡혀 부자연스런 폭력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적 차별과 관료의 횡포라는 내적인 폭력 위에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외적인 폭력이 더해진 상황이다. “제폭구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에서 1차 혁명이 전자의 폭력을 없애고자 했다면, 2차 혁명은 후자의 폭력을 물리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세의 폭력에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선 광정”하여, 평화로운 새[新] 질서를 만들고자 한 삼일운동은 개벽운동의 거국적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이 개벽운동의 거국적 전개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 한다면, 삼일독립운동은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셈이다.

### II-3. 전환의식

마지막으로 「독립선언서」에는 ‘시대전환’의 역사인식이 보이는데, 이 점은 개벽사상

21) 증산교를 창시한 강증산은 “목은 하늘”과 “앞 세상”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목은 하늘”은 ‘선천’에, “앞 세상”은 ‘(후천)개벽’에 해당한다: “나는 타고난 모습대로 소탈하게 살 것을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고, 나는 의례가 간소하기를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예절이 번잡하고, 나는 웃고 기쁘게 대하기를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위엄을 주장하였느니라. 나는 다정하기를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정숙하고 점잖은 것을 높이고, 나는 진실하기를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허장성세를 세우고, 나는 화락하기를 주장하나 목은 하늘은 싸워 이기기를 주장하였느니라. 앞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신분과 직업과 귀천이 없어 천하는 대동세계가 되고 모든 일에 신명이 수종들이 이루어지며 따뜻한 정과 의로움이 충만하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리라. 목은 하늘은 이것을 일러 상놈의 세계라 하였느니라.”(『증산도 도전』 제4편 33장). 박규태,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과 종교 : 하늘-이단-지도의 앞」, 『종교연구』 35, 2004, 134쪽에서 재인용(강조는 인용자의 것).

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흔히 ‘개벽’은 ‘후천개벽’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고, 후천개벽이라고 하면 종말론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 후천개벽 개념은 종말론보다는 (문명)‘전환론’에 가깝다.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개벽’ 개념을 세분화한 것은 최제우의 뒤를 이은 최시형으로, 최제우의 ‘다시 개벽’이 사상의 수입에서 창조로의 주체적 전환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최시형의 ‘후천개벽’은 물질개벽에서 인심개벽으로의 도덕적 전환의 함축이 강하다.<sup>22)</sup> 즉 선천개벽이 물질의 발달에 의한 문명형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물질개벽),<sup>23)</sup> 후천개벽은 그에 따라 요청되는 정신의식의 전환(인심개벽)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심개벽에 의해 운영되는 문명을 ‘도덕문명’이라고 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물질개벽에 걸맞은 후천도덕이 필요하다는 최시형의 후천개벽 사상은 이후에 원불교에 이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開敎標語)로 정식화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시대전환적 역사인식은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이고 있다.

아아!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는 거(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來)하도다. 과거 전세기(全世紀)에 연마단련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始)하도다.

여기에서는 낡은 ‘위력의 시대’에서 새로운 ‘도의의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신문명[新天地]의 탄생이라는 문명인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물질시대에서 정신시대로의 전환, 폭력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의 개벽을 주창하는 최시형의 후천개벽사상이나 도덕문명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도의’라는 개념은 개벽학의 핵심용어인 ‘도덕’과 상통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도의/도덕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선언서」나 개벽학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sup>25)</sup> 즉 동학이나 천도교 등에 보이는 도덕평화사상이 「독립선언서」에도

22) “대신사 항상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세상은 요순공맹의 덕이라도 말하기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지금의 시대가 후천개벽임을 말함이다.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니, 장차 물질발명이 극에 달하여 모든 일에 전례없는 발달을 이룰 것이니…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해월신사법설』「기타」)

23) 최시형은 ‘선천개벽’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24) “明天地之道，達陰陽之理，使億兆蒼生，各得其業，則豈非道德文明之世界乎!”(천지의 도를 밝히고 음양의 이치에 통달하여 억조창생으로 하여금 각각 그 업을 얻게 하면 어찌 도덕문명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해월신사법설』「성인지덕화(聖人之德化)」.

25) 가령 원불교에서 세운 원광대학교의 건학이념 중의 하나는 ‘도의의 실천’이고, 최근까지도 원광대학교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독립선언서」는, 마치 최제우나 최시형이 다시개벽과 후천개벽을 선언했듯이, “도의의 시대”를 선언하는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동학의 개벽이 도덕에 의한 새 시대의 개척, 즉 도덕개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도의의 시대의 도래”는 동학의 도덕개벽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III. 개벽학의 도덕평화사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은 ‘도의’[도덕]라는 한 단어로 수렴되고 있는데, 삼일운동이 비폭력 평화운동을 추구한 것은 그들이 ‘위력[폭력]의 시대’가 아닌 ‘도의[도덕]의 시대’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이야말로 문명이고 폭력은 야만”이라는 문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벽학 역시 도덕에 의한 평화사회를 지향했는데, 다만 그들이 유학자들과 달랐던 점은 유학과는 다른 형태의 도덕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흔히 중국철학에서 노자와 장자는 ‘도덕’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종래의 도덕을 전복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도답지 않은 도”[不道之道]나 “감추어져 있는 덕”[玄德]과 같은 표현이 그러한데, 이것은 선진(先秦) 유학에서 말하는 명시된 도[名道]나 밝은 덕[明德]을 180도로 뒤집으면서 새롭게 제시된 형이상학적인 도덕 개념이다. 브룩 지포린이 노장의 도를 ‘반어적 도’(ironic Dao)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26)</sup>

개벽학의 도덕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선 유학의 도덕 개념을 뒤집으면서 새롭게 제시된 도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동학에서 말하는 도와 덕은, 일견 유학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가령 최제우가 인의예지를 말한다거나 최시형이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것과 같이), 그 도덕의 출발이 하늘이라는 ‘동(同)’, 즉 평등의 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分)’, 즉 차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유학적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sup>27)</sup>

는 ‘도덕대학’을 표방하였다.

26) Brook Ziporyn, *Ironies of Oneness and Difference: Coherence in Early Chinese Thought: Prolegomena to the Study of Li*, SUNY Press, 2013.

27) 가령 조선시대에 ‘명분(名分)’이라는 말은 “신분[名]에 의한 구분[分]”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어 세종시대에 상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분’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종과 주인의 명분(名分)이 엄한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그 고발을 받지 말고 무고율(誣告律)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여자 종의 남편과 남자 종의 아내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그 고발을 받지 말고 장(杖) 1백, 유(流) 3천 리의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4년, 2월

즉 유학의 도덕이 사회적 구분(分)에 의한 조화[和而不同]와 평화[平天下]를 지향한다면, 동학은 그 분(分)을 없애야 비로소 유학이 지향하는 조화와 평화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시형이 말하는 “오직 하늘만은 반상(班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향벽설위에서 향아설위로의 전환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동학이나 강증산이 보기에 신분적 구분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사회적 평화’에 불과하지, 그것이 신분에 의해 차별받는 이들의 ‘내면적 평화’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강증산이 말하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이러한 내면적 원한까지 해결해야 진정한 상생과 평화의 사회가 도래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이 이들의 제시한 새로운 도덕이자 개벽된 하늘이었다. 구별과 차별과 원한의 선천도덕에서 평등과 평화와 상생의 후천도덕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 개벽학의 신도덕이었다.

특히 동학의 특징은 인물(人物)간의 평화까지도 주장했다는 데에 있는데, 여기서 ‘인물간’(人物間)이란 “사람과 사물 사이”를 말하고, ‘사물’은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을 총칭한다. 동학의 새로운 도덕[新道德]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도 ‘도덕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자학에서는 동식물은 탁한 기운으로 인해 인의예지의 도덕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그런 점에서 인간과 동식물은 도덕적 우열관계 내지는 상하관계로 서열화되고 있었는데 반해, 동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우주적 생명력[一氣]을 모시고 있는 동등한 ‘하늘’로 간주되어, 존재론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순히 평등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에게는 그것들을 하늘처럼 모시고[侍天] 길러야[養天] 하는 책임까지 부과되었다. 즉 사물을 활용하는 권리보다는 그것들을 공경하는[敬物] 의무가 강조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를 도덕적 평등관계로 재정립하여, 인간의 폭력에 의한 사물의 손상을 없애기 위한 ‘제폭구물’(除暴救物)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 IV. 맺으며

종래에 한국근대사는 대부분 ‘개화’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왔다. 근대의 시작을 1876년 개항으로 잡는 것도 그렇고, ‘개화’의 전사(前史)로서의 ‘실학’이 부각되어 온 것도

그렇다. 그러나 ‘개벽’의 관점에서 한국의 근대를 다시 보면 종래와는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독립선언서」는 물론이고,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같은 작품 역시 동학적 ‘하늘’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개벽파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흐름은 이후에 김지하의 「밥이 하늘입니다」나 박노해의 「너의 하늘을 보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근대 민중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포석 조명희(1894~1938)는 흔히 프롤레타리아작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의 시의 전면에 ‘생명사상’과 ‘사회변혁’ 사상이 깔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sup>28)</sup> 개벽파 계열의 문학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한편 개벽파의 작품은 아니지만, 정지용의 시는 흔히 ‘모더니즘’이라는 장르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의 대표작인 「향수」에는 동아시아적인 천지인(天地人)의 세계관이 녹아 있다<sup>30)</sup>. 따라서 단순한 모더니즘이 아닌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마치 개벽학이 추구했던 근대를 개벽적 근대라고 하듯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도, 최근의 ‘촛불혁명’은 생명과 평화의 정신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나 삼일만세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자체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거국적인 보국안민운동이었고, 그 방식은 삼일만세운동과 같은 평화적 외침이었으며, 그 표현은 해원상생의 축제였다는 점에서 이처럼 근대 한국의 사상이나 사건들을 ‘개벽’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새롭게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역사 재서술·재해석 작업이야말로 우리의 잊혀졌던 근대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작업에 다름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6.

김용옥, 『독기학설』, 통나무, 2004.

이규성, 『최시형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김익록 엮음,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시골

28) 가령 그의 시에 나오는 ‘우주생명’과 같은 시어는 동학·천도교의 생명사상과 상통하고 있다.

29)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희의 작품을 분석한 글로는 오구라 기조, 〈생명하는 녀...조명희를 읽다〉, 《동양일보》(2017.02.26.)나 조성환, 〈생명과 생활의 부조화에서 개벽을 꿈꾸다 - 한국사상으로 읽는 조명희〉, 《동양일보》(2017.03.05)가 있다.

30) 이 점에 대해서는 정지용 전문가인 김영미 시인으로부터 계발을 받았다.

생활, 2012.

오구라 기조 지음, 조성환 옮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모시는사람들, 2018.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근대 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 모시는사람들, 2018.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모시는사람들, 2018.

Brook Ziporyn, *Ironies of Oneness and Difference: Coherence in Early Chinese Thought; Prolegomena to the Study of Li*, SUNY Press, 2013.

박규태,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과 종교 : 하늘-이단-지도의 삶」, 『종교연구』 35, 2004.

류성민, 「종교의 공공성과 시대정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콜로키움 발표문, 2017년 9월 28일.

조성환, 「한국학으로서의 원불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4집, 2018.

이병한, 〈동학은 ‘농민 전쟁’ 아닌 ‘유학 혁명’이다!〉, 《프레시안》, 2014년 1월 20일.

오구라 기조, 〈생명하는 녀…조명회를 읽다〉, 《동양일보》, 2017년 2월 26일.

조성환, 〈생명과 생활의 부조화에서 개벽을 꿈꾸다 - 한국사상으로 읽는 조명회〉, 《동양일보》, 2017년 3월 5일.

조성환, 〈개벽사상으로 다시 읽는 독립선언서〉, 《개벽신문》 79호, 2018년 11월.

조성환, 〈청년과 개벽〉, 《개벽신문》 80호, 2018년 12월.

---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21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7일

연구자 소개: 조성환

① 전공: 한국근대사상사 / 소속과 직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② 관심영역: 실학, 개벽사상

③ 주요논저: 『한국 근대의 탄생』

④ E-mail: hansowon70@nate.com

---

Abstract

Korean Modernity Rethinking through Gaebyok(Great opening)  
- Focusing on Gaebyok Thinking in the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

Jo, Sunghwan  
Wonkwang University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has been analyzed mainly in relation to the Wilson's Self-Determination. But considering the strong relation of Chondogyo and the March 1st Movement, we can guess that the thought of Chondogyo influenced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This study focuses on Gaebyok thought in Donhak as a origin of Chondogyo, Zeungsangyo which maintained true Donghak, and Won Buddhism which succeeded them, and analyzed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core thought of Gaebyok Religion, for example frontier spirit, the thought of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moral pacifism and so on,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This result suggests that not only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but also Korean modernity itself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Gaebyok thought.

**Key words:**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Gaebyok(Great Opening/ Great Transformation) thought, frontier spirit, transformation of civilization, moral pacifism, Korean modernity